

정조 38선, 퇴폐, 그리고 문학사*

— 풍기문란과 냉전 프레임(frame)을 중심으로

권명아**

차례

1. 정조 38선, “광복 30주년과 풍기문란”
2. 망국적인 것과 퇴폐: 식민성의 ‘유산’과 냉전 서사를 통한 변형
3. 망국적인 것과 현대사의 심연: 역사의 종착점, 정통성의 시연
4. 망국적인 것, 퇴폐, 그리고 현대문학사
5. 안녕, 문란

국문초록

풍기문란이라는 범주는 퇴폐와 문란이라는 이름하에 역사의 어떤 순간을 지속적으로 호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망국(亡國)”이라는 역사적 순간이다. 냉전 체제하에서 퇴폐풍조가 “망국병”으로 비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퇴폐풍조로 환기되는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은 여러 지점에서 “망국”의 순간(moment계기)과 관련이 깊다. 풍기문란과 관련된 법적, 담론적 구조는 국가적인 것의 망실(亡失, loss)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이 국가 망실의 계기는 비국민 담론의 형태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는 일제 시기의 법적, 담론적 구조를 여전히 이어받으면서도 일정한 변모를 보인다. 그것은 국가 망실의 순간이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준거를 통해 명징한 것으로 변형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식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32-A00159

** 동아대학교 국문과 조교수

민 지배와 한국 전쟁은 특히 이러한 국가 망실의 순간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준거가 되었다. 따라서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에는 일정한 역사적 서사가 도입된다. 이러한 서사적 재교정을 통해서 풍기문란에 관한 담론은 당대의 망국적 증상에 대한 공포를 명확한 역사적 준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비난하고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문학사에 있어서 퇴폐 범주 역시 이와 같은 냉전 서사와 무관한 미학적, 역사철학적 의미의 내적 작용에 의해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백철의 문학사 기술의 여러 판본들은 냉전 서사에 의해 재구성된 풍기문란에 대한 규정에서 망국적인 것이라는 범주가 당대에 대한 기술과 역사에 대한 기술의 밀접한 연동 속에서 작용하는 구조를 전형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망국적인 것과 퇴폐의 요인이 주권성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되는 경로를 백철의 문학사 기술은 ‘문학적으로’ 보여준다.

핵심어 : 풍기문란, 퇴폐, 정조38선, 냉전서사, 문학사, 역사기술, 1919·3·1, 수난, 백철

1. 정조 38선, “광복 30주년과 풍기문란”

1975년 한 신문사에서는 “광복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간의 역사를 정리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시리즈 기사 중 한편은 『貞操 38線서 演藝 스캔들까지』라는 제목 하에 “풍속 사범”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¹⁾ 이 기사는 풍속 사범의 역사가 해방 직후 미군에 의한 여성의 정조 유린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1947년 미군과 내연 관계에 있던 18세 여성이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가자 아이를 낙태했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에 구속되면서 세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 독립 축성회는 “겨

1) 『광복 30년-풍속 사범, “貞操 38線서 演藝 스캔들까지”』, 『朝鮮日報』, 1975년 6월 14일.

래의 정조의 옹호와 풍기의 단속을 부르짖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 이 성명서의 필자들은 虛榮女들을 “민족의 감시로써 깨끗한 삼천리강산으로부터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 30년-풍속 사범, “貞操 38線서 演藝 스캔들까지”』 기사는 정조 38선을 둘러싼 또다른 사건을 소개하는 데 그것은 이화여전 학생의 정조를 유린한 보안대원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실제 사건으로 1947년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해주 보안대원이었던 김철은 당시 이화여전 학생이던 김혜숙이 학교를 가기 위해 월경(越境)을 해야 하는 처지를 악용해서, 김혜숙을 38선 근처 여사(旅舍)에 투숙시켜놓고 갖은 농락을 하고 그 대가로 월경을 허가해주었다. 『광복 30년-풍속 사범, “貞操 38線서 演藝 스캔들까지”』 기사는 해방 직후의 일련의 사건에서 한국 전쟁 이후의 아프레 걸의 문란한 행태들 및 1950년대를 풍미한 박인수 사건, 1970년대의 연예인 스캔들 등에 이르는 풍속 사범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 풍기문란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재생산된 과정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풍기문란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풍속 통제라는 일본의 법적 장치와 결부되어 있다. 일본에서 풍속 통제가 일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법적 조치에서 성 산업으로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은 이른바 미군정(GHQ)하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미군정 지배와 한국 전쟁, 분단 체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풍속 통제를 통한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는 더욱 강화되었다. 또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 만들어진 풍속 통제의 원리와 법제, 모형들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2) 이 성명서는 『朝鮮日報』 1947년 1월 21일자에 「虛榮女에 경고」라는 제목 하에 게재되었다.

다. 위에서 언급한 정조 38선이라는 수사는 그런 점에서 풍기문란과 관련된 사법적, 담론적 구조가 냉전 체제하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정조 38선이라는 수사는 외국 병사에 의한 한국 여성의 정조 유린을 외세에 의한 주권의 유린과 동일한 차원으로 배치하고, 또 38선이라는 냉전의 영토적 경계를 재확인하기도 한다. 즉 정조 38선이라는 수사에는 풍기문란이라는 것을 주권의 영토적 경계와 관련된 것으로 표상하는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광복 30년-풍속 사범, “貞操 38線서 演藝 스캔들까지”』 기사로 되돌아가보자. 이 기사를 통해 풍기문란과 광복 30년을 둘러싼 어떤 서사 원리의 일단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풍속 사범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한다. 풍속 사범의 출발은 해방 직후 미군에 의한 범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한국 여성은 힘없는 피해자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서 1960년대 초까지 한국 『여성해방』을 상징하는 몇 가지 입법조치가 행해”짐으로써 여성의 권리가 신장하여 여성은 더 이상 피해자로만 존재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해방』의 방향이 잘못 받아들여짐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빚는 일도 왕왕 있었다. 특히 6·25동란을 계기로 한국의 성도덕은 하나의 전기를 가져왔다.”

이 기사에서 풍속 사범의 역사는 여성의 주체 위치(subject position)의 변동과 관련하여 그려지고 여성이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법적인 주체로, 다시 가해자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 즉 해방 직후에는 주권을 주장할만한 권리가 없던 여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더불어 법적 권리와 주권을 갖게 되었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러한 권리가 잘못 오인되어 남용되기 시작하고 여성은 풍속 사범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에서 흥미로운 것은 해방 직후에서 광복 30주년의 시점까지 여성의 주체 위치 변동과 그 주권성(혹은 법적 지위)의 변

화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성’의 위치와 정확하게 대칭된다는 점이다. 여성이 풍속 범죄의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법적 주체의 위치로, 그리고 다시 가해자로 이동하는 과정은, 대한민국이 ‘외세’와의 관계 속에서 무기력한 피해자에서 주권성을 지닌 존재로 이동하는 과정과 병치된다. 여기서 여성이 법적 주체에서 가해자로 변화하는 과정은 풍속 사범이 외세에 의한 정조 유린에서, 대한민국 내부의 사회 문제로 이행하는 과정과 상응한다. 즉 풍속 사범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것이 풍기문란 담론의 궁극적 효과이다.)이 외부적인 것(외세)에서, 내부적인 것(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성의 강화와 완성(여기서 여성해방의 과정과 대한민국의 해방의 과정이 상동구조를 이룬다.)의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내부화(즉 사회적 위험 요소의 내부화) 과정이다. 이 이중의 과정 속에서 풍기문란은 한편으로는 외세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성(민족의 순결)의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내부의 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환기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풍속 사범에 대한 회고는 단지 풍기문란의 역사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성에 대한 특정한 서사를 내포하는 것이다. 이 서사는 역사에 대한 회고적 서사이면서 동시에 현재에 대한 당대 개입적 서사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냉전 체제하에서 문란함과 퇴폐와 같은 풍기문란과 관련된 규정들은 단지 당대의 시정 세태의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성의 역사를 끝없이 환기하고 재기술하는 개념이 된다.

즉 위에서 살펴본 기사의 서술 방식에서 풍기문란의 역사는 해방 직후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의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회고한다. 이때 무기력한 피해자일 뿐인 여성(대한민국)의 위치는 법적 장치로 상징되는 국가 주권의 틀(frame)이 ‘아직 세워지지 못

함'에서 비롯되는 불안한 상태와 등가를 이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어서 일련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됨으로써 이러한 불안은 잠식되었지만, 내부의 위협 요인들에 의해서 이 혼란이 다시 야기된다. 즉 이러한 서사에서 풍기문란의 역사란 주권의 안정된 상태를 보장하는 일련의 프레임(frame)의 부재에서 오는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회고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서사는 일제 시기부터 지속된 풍기문란에 대한 사법적, 담론적 구조에 냉전 체제의 특정한 심성 구조가 결부된 것이라 할 것이다. 먼저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가 왜 혼란과 무질서와 주권의 틀을 상기시키는지 살펴보고 도록 하자.

2. 망국적(亡國的)인 것과 퇴폐 : 식민성의 '유산'과 냉전 서사를 통한 변형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이라는 범주는 풍속 사범, 퇴폐풍조 등의 범주로 변주되었다. 이러한 범주로 호출되는 집단은 허영녀, 아프레걸에서부터 장발 청년과 미니스커트의 여성, 통기타와 생맥주를 즐기는 집단만은 아니었다. 풍기문란이라는 범주는 퇴폐와 문란이라는 이름하에 역사의 어떤 순간을 지속적으로 호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망국(亡國)”이라는 역사적 순간이다. 냉전 체제하에서 퇴폐풍조가 “망국병”으로 비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퇴폐풍조로 환기되는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은 여러 지점에서 “망국”의 순간(moment계기)과 관련이 깊다. 풍기문란과 관련된 법적, 담론적 구조는 국가적인 것의 망실(亡失, loss)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이 국가 망실의 계기는 비국민 담론의 형태로 명확하게 나타난다.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는 일제 시기의 법적, 담론적 구조를 여전히 이어받으면서도 일정한 변모를 보인다. 그것은 국가 망실의 순간이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준거를 통해 명징한 것으로 변형된다는 점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은 특히 이러한 국가 망실의 순간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준거가 되었다. 따라서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에는 일정한 역사적 서사가 도입된다. 이러한 서사적 재교정을 통해서 풍기문란에 관한 담론은 당대의 망국적 증상에 대한 공포를 명확한 역사적 준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비난하고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풍기문란이 국가적인 것의 망실에 대한 공포를 환기하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개략적 면모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냉전 체제하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논의해보자.

풍기문란과 미풍양속의 관계는 방종(exousia)과 자유(eleutheria)의 관계와 유비적이라 할 것이다.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규정들은 이른바 방종의 목록들, 혹은 방종이란 무엇인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측정술에 다름 아니다. 무궁무진하게 이어지는 방종의 목록의 작성 기준은 자유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측정술, 혹은 지배의 기술이다. 그렇다면 자유를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그것은 방종이 아닌 것이다. 즉 자유와 방종 사이에는 기묘한 순환론적 구조가 작동한다. 자크 데리다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것은 이른바 자기를 민주주의라고 소개해온 어떤 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³⁾

어원상으로는 역사적으로나 방탕함은 “무(無)노동, 노동의 중지, 어떤

3) 데리다는 방탕함(roué)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의미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선로 이탈, 차형(roue車刑), 바퀴(roue), 한 표를 행사하는 차레(tour)와 관련된다고 논한다. 데리다는 방탕함에 대한 개념의 역사, 혹은 자유에 대한 개념의 역사는 측정 불가능한 것을 측정하고 계량하는 척도를 산출하는 과정이었음을 고찰하고 있다. 자크 데리다, 이경신 옮김, 『불량매들』, 서울: 휴머니스트, 2003, 66~67쪽.

실업, 취업이나 노동권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 또 유희와 음란, 파렴치함, 음욕, 음탕, 방탕, 방종”을 의미한다. 또 방탕한 자들이란 “한가하고, 때 때로 실업 상태에 있음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거리를 점거하는데 매달려 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쏘다니고’ 배회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방탕함이라는 수사에 의해 누군가를 호명하는 것은 “항상 수직적이고, 대개는 경멸적이며 고발적”이다. 따라서 방탕한 자 (풍기문란한 자)라는 호명은 “결코 중립적인 속사도 아니며 입증된 사실의 대상도 아니다.” 풍기문란한 자라는 호명은 이미, 그리고 항상 “어떤 잠재적인 심문(審問)과 닮아 있는 명명”이다. 풍기문란한 자는 “법 앞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이다.”⁴⁾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는 특정 집단의 존재 방식 자체를 심문하는 구조이다. 이 심문의 구조는 인간을 어떤 속성에 따라서 측량하고(음란, 파렴치함, 음욕, 혹은 이와 반대되는 건전함, 상식적, 선량함 등) 특정 속성을 부정적인 정념⁵⁾으로 간주한다. 또 이러한 부정적인 정

4) 이런 이유로 데리다는 불량배란 바타이유가 말하는 주권이라는 반개념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고, 혹은 벤야민이 말하는 대역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논한다. 또한 불량배란 늑대인간이기도 하다. 즉 방탕함에 대한 데리다의 질문은 “짐승과 군주”에 관한 물음이며 “주권의 문제들에 있어 늑대의, 늑대 형태들의, 모든 늑대 인간의 어떤 계보학이론”이다. 위의 책, 147~155쪽.

5) 흔히 정념은 분노, 기쁨, 슬픔, 원한, 등 인간의 감정 혹은 심리적 상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논의된다. 정념과 주체화,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념을 이러한 고전적인 의미와 함께 정치적 주체화와 관련된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다. 스피노자의 사상을 재해석하면서 네그리가 정의하고 있듯이 정념(*la passion*)은 “심리학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장소이며, 관계로서 주체성이 짜여지고 있는 일종의 사실 관계들이다.” Antonio Negri, *Spinoza sovversivo. variazioni (in) attuali*(1992), 이기웅 옮김, 『전복적 스피노자』, 서울: 그린비 출판사, 2005, 219쪽. 본고에서 논하는 정념의 거처란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작동하는 장들(사랑의 공간에서 아고라)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근거에서는 이른바 다수의 정념이 거하는 장소로서, 다수의 주체성이 짜이는 장소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념에 사로잡힌 인간은 자기 규율화가 불가능한 존재이자 사회 자체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존재로 간주된다. 풍기문란자들의 ‘초상’을 그리는 담론 구조들에서 이들은 무질서이자, 혼란, 심연을 알 수 없는 혼돈 상태처럼 그려진다. 이들은 단지 반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트리는 존재로 간주된다. 이런 담론 구조상에서 풍기문란자들이란 이른바 사회 속의 ‘자연’, 더 정확하게는 사회 상태로 전환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 대한 표상과 연계된다.

풍기문란자들은 종종 ‘반문명적’, ‘반근대적’ 존재로 간주되는 데, 이는 단지 문명 대 야만이라는 대립 구도의 표명은 아니다. 오히려 풍기문란자들을 이처럼 반문명적 혼란, 무질서로 표상하는 구조는 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계약론적 상상 구조와 더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즉 풍기문란자들은 사행심, 파렴치함, 과도한 성욕, 이기심과 같은 부정적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의 행위 양태나 삶의 패턴은 이러한 부정적 정념의 소산이다.⁶⁾ 이 부정적 정념에 사로잡힌 존재들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또한 주디스 버틀러는 정념과 정치적 주체화의 문제를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 속에서 엑스터시(ecstasy)가 형상화 되었던 방식을 사용해서 다시금 의제화 한다. “ec(脫)-static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 밖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열정(passion)에 의해 자신 너머로 이동하는 것뿐 아니라 분노나 슬픔으로 자기 옆에 있는(beside oneself) 것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 버틀러는 “나는 내가 성적 열정, 정서적 슬픔, 정치적 분노 중 어느 하나 때문에 우리 옆에서 살고 있는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념을 정치적 주체화의 장소로 재배치하고 있다. Judith Butler, “Violence, Mourning, politics”, *Precarious Life: The power of Mourning and Violence*, Verso: London and New York, 2004, pp.24. 한국어본, 양효실 옮김, 『불확실한 삶: 애도와 폭력의 권력들』, 부산: 경성대출판부, 2008.

6) 이 부분의 논의는 權明娥, 『風紀紊亂と情念のアドレス— 愛の空間からアゴラにいたる風俗統制の力學』, 『文學』, 岩波書店, 東京, 2010, 3월 발간 예정, 참조. 필자는 이 글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연구가 특정한 역사적 사례(일제 시기나 해방 후 한국 등)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성의 법적, 담론적 구조에 대한 탐구이자, 이에 포섭되거나 대결하고, 갈등하는 다중의 정념을 규명하는 “문제설정”으로서

못하기에 끝없는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된다. 또 이 무질서와 혼란의 끝은 죽음, 혹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 구조는 이른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 다수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권의 자발적 양도(계약과 합의)를 통해 사회 상태로 이행(국가의 도입)해야 한다는 계약론적 이야기를 전형적으로 반복한다.⁷⁾ 즉 풍기문란자를 규정하는 담론 구조는 주권의 자발적 양도와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계기(혹은 순간)를 매번 다시 도입한다. 그런 점에서 풍기문란자는 사회 속의 ‘자연’이며, 늑대 인간이며 포함되면서 배제된 자(호모 사케르)이다.⁸⁾

그런 점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는 문란과 퇴폐, 불량 등의 수사를 통해 특정 집단을 법의 힘 앞에 심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국가 개입의 합법적 토대를 정초한다. 일제 시기 풍기 문란 담론은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비국민 담론과 연계된다. 이는 풍기 문란 담론 구조에 내포된 선량한 주체와 풍기 문란한 주체라는 대립구조가 좋은 일본인과 비국민이라는 대립 구조로 연계되는 지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만의 사례를 통해서 레오 칭(Leo Ching)이 지적하고 있듯이 황민화란 이미 ‘일본인’이 된 대만과 조선의 경우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구조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는 일본 제국의 논리는 “좋은 일본인 되기”라는 것이었다. “좋은 일본인 되기”로서 황민화의 이데올로기는 객관적인 사회적·정치적 적대를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론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논하였다.

7) 사회계약론의 담론 구조와 여기서 주권성의 양도와 포기에 대해서는 Carole Pateman, *The sexual contract*, Cambridge, UK : Polity Press, 1988. 한국어본, 이충훈, 유영근 옮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서울: 이후, 2001 참조.

8) 조르쥬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참조.

전환하는 구조를 취한다. 황민화가 “좋은 일본인”임을 스스로 자기 증명해야 하는 수행성의 구조를 취하는 것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다.⁹⁾

좋은 일본인 되기와 비국민 심문의 답론 구조는 미풍양속과 풍기문란 답론 구조의 확대재생산 방식을 취한다. 즉 좋은 일본인의 속성은 그 자체로 규정되지 않고(때로는 추상적인 덕목들이 제시되지만) 좋지 않은(비국민) 속성들의 무한한 나열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다면 핏자국(혈통)이 아닌 다른 것을 지우는 일은 핏자국을 남기지 않는가? 풍기문란자에 대한 심문 구조에서 선량한 주체가 되기 위한 존재 증명에 남아있는 말살의 흔적은 교화의 논리로 전도된다. 이와 같은 구조로 좋은 일본인이 되기 위한 존재 증명의 과정에 내포된 말살의 흔적도 교화의 논리로 전도된다. 이러한 상동 구조는 매우 중요한데, 말살의 핏자국이 교화의 논리로 전도되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황민화의 역학은 동의나 수탈이라는 이분화 된 논리로 설명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여기 남아있는 핏자국은 혈통의 흔적만이 아니기에 그 핏자국을 혈통의 관점(민족주의적 방식)에서 규명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게 된다.

풍기문란과 선량한 풍속, 풍기문란자와 선량한 시민의 관계는 전시 동원 체제하에서 비국민과 좋은 일본인이라는 구조로 확대된다. 그렇다면 이 답론 구조를 구성하는 선량함과 문란함, 좋은 일본인과 비국민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풍기문란에 대한 사법적, 답론적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속성을 부여하는 술어는 제한적이라는

9) 조선에서 “좋은 일본인 되기”와 황민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서울: 책세상, 2005년 참조. 이 책에서 필자는 스파이 담론과 좋은 일본인 되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국민화와 국민화의 역학을 고찰했다. 대만에서의 “좋은 일본인 되기”에 대해서는 Leo Ching, *Becoming “Japanese”: Colonial Taiwa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Formation*,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1 참조.

점이다. 선량함이나 좋은 일본인에 대한 규정은 추상적이거나, 제한적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문란함과 비국민적 자질에 대한 규정은 무한 증식한다. 실상 선량함이나 국민됨의 자질은 풍기문란이나 비국민의 속성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정립된다. 즉 선량함이란 이에 대한 부정 신학적 진술들(‘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을 통해 규정된다. 풍기문란에 대한 담론은 그런 점에서 선량함을 입증하는 부정 신학적 진술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학은 비국민에 대한 규정과 국민 됨의 규정 사이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생명 정치가 죽음의 정치로 넘어가는 문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독일의 경우 수용소(camp)의 무젤만이였다. ‘식민지 조선’의 풍기문란자들은 바로 캠프로서의 삶, 혹은 삶의 캠프화의 전조이자, 징후였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캠프화는 현실이 되었다.¹⁰⁾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의 법적, 담론적 구조에 내포된 이러한 기제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상태와 사회 상태, 혼돈과 무질서와 국가 개입의 정당화라는 풍기문란과 비국민 담론을 둘러싼 서사 구조는 냉전 체제하에서 특정한 역사적 국면과 결합된다. 특히 국가의 망실로 인한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지표가 식민 통치의 경험과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준거와 등치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풍기문란에 관한 서사 구조에서 자연상태, 혼돈, 무질서 등으로 표상된 지점에 역사적 사건이 등치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는 이러한 국가 망실로서 퇴폐의 등가물이 된다. 냉전 체제 하에서 1920년대는 왜 망국병으로 점철된 퇴폐의 시기로 그려지는 것일까? 그 일면을 살펴보자.

10)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 『민족문학사연구』 3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4: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현대소설연구』 39, 현대소설학회, 2008. 12 참조.

“퇴폐풍조 박멸”의 구호 하에 학생, 청년 등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정화 운동이 한창이던 1973년, 망국병으로 퇴폐풍조의 병폐를 비판하는 한 기사는 1920년대의 “못된 유행”을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못된 유행”-20年代 퇴폐풍조』¹¹⁾라는 제하의 기사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풍속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마작, 양복(洋服)사치 풍조, 자동차, 경마, 요정(料亭)이 되어버린 사찰(寺刹)을 1920년대의 퇴폐풍조의 사례로 기술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퇴폐풍조는 “亡國的 유희”로 기술되는데 이 망국적 유희에 탐닉하는 것은 주로 청년 학생층으로 기술된다. 즉 “학교를 졸업하고 나온대야 별도로 취직할 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면서도 채 졸업도 하기 전에 『양복대 백원급송』이라는 전보를 몇 번이나”¹²⁾ 부모에게 보내는 철없는 학생들이 퇴폐풍조라는 망국병의 주범으로 기술된다. 퇴폐풍조의 장소는 “청춘의 가득한 향락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1920년대 당대 이른바 모던보이에 대한 비판 방식을 답습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970년대 청년, 학생층에 대한 비난과 정화(학생 풍기 단속이나 청년 문화를 퇴폐와 불온으로 규정하면서 정화하려는 시도들) 담론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1970년대 시점에서 다른 시기가 아닌 1920년대가 망국병=퇴폐풍조의 역사적 상응물로 호출되는 것일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냉전 서사에서 풍기문란에 대한 담론은 식민 통치와 한국 전쟁 경험을 퇴폐와 문란, 혼돈과 무질서의 역사적 등가물로서 배치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적 배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192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919년 3·1 운동 이후의 역사적 국면이 퇴폐의 역사적 등가물로 재구성되는 방식이 냉전의 서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1) 『“못된 유행”-20年代 퇴폐풍조』, 『조선일보』, 1973년 4월 24일.

12) 위의 글.

다음으로는 1919년 3·1 운동 이후의 역사적 국면이 퇴폐의 역사적 등가물로 재구성되는 방식이 역사 기술, 특히 현대사와 현대 문학사 기술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통념적으로 풍기문란에 대한 법적, 담론적 구조는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적 관리에 국한된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이런 통념적 이해에 입각해서 본다면 풍기문란과 역사 기술을 나란히 배치해서 고찰하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 서사에서 풍기문란은 역사에 대한 특정한 서사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또 이는 국가 망실의 서사를 여러 차원에서 반복함으로써 풍기문란 담론에 내포된 국가 개입의 정당화, 혹은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무질서에서 안정된 틀(frame)로의 이행이라는 이행의 서사를 재생산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냉전 서사에서 1919년 3·1 운동 이후의 역사적 국면이 어떻게 퇴폐라는 규정의 내연을 이루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3. 망국적인 것과 현대사의 심연 : 역사의 종착점, 정통성의 시원

말하자면 이 時代의 문학자들은 三一運動이라는 찬란한 夕陽의 一景도 지나고 캄캄한 밤중에 사는 사람들이었다.¹³⁾

냉전 체제하에서 백철의 문학사 서술은 현대문학의 제도적 정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주지하다시피 백철은 1920~30년대를 이른바 “병든 문학”, “퇴폐의 문학”이라고 규정하였다.¹⁴⁾ 백철의 문학사 기술에서 3·1

13) 백철, 『新文學思潮史』, 민중서관, 1952, 123쪽.

운동 이후를 퇴폐로 규정하는 것은 냉전 서사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본을 달리하여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만들어지는 백철의 문학사는 냉전의 서사가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를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냉전 서사를 통한 교정이 3·1 운동 이후의 역사적 시간들을 어떻게 퇴폐의 내연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백철의 텍스트는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서사적 교정의 과정은 백철 개인만의 독특한 산물은 아니었다. 3·1 운동을 대한민국의 주권성의 출발점으로 정초하면서, 그 이후를 퇴폐의 시간으로 기술하는 방식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역사 기술 방식에서 퇴폐와 3·1 운동 이후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살펴보자. 앞으로 살펴볼 서사들에서 3·1 운동은 국가/민족 주권성의 정점으로 표상된다. 정점이란 다른 말로 하면 몰락을 앞둔 순간인 것이다. 따라서 3·1 운동 이후는 몰락의 시간, 퇴폐의 등가물이 된다. 그런 점에서 3·1 운동은 정점/몰락, 주권/퇴폐를 가르는 상징적 기호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3·1 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1919·3·1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1919·3·1이 주권과 관련된 냉전 서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상계』 창간호에서 백낙준은 「三一精神論 - 우리 獨立宣言書의 4大基本自由에 對하여」¹⁴⁾라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성을 재정초하는 데 있어 3·1 운동이 차지하는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백낙준은 “三一精神의 중요한 한 조건은 우리 국민 각개가 다 자유민으로서 독립국가의 일원이 되도록 활동하는 것이며 그 정신을 실행하

14) 1930년대 퇴폐라는 규정이 내포한 미학적, 역사철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 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11~220쪽 참조.

15) 백낙준, 「三一精神論 - 우리 獨立宣言書의 4大基本自由에 對하여」, 『思想界』, 창간호, 1953년 4월호.

는 것”¹⁶⁾이라고 정의한다.(여기서 자유민으로서의 독립국가란 이른바 자유진영을 말한다. 즉 소련과 그 위성국가는 독립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자유민으로서의 독립국가는 아니라고 백낙준은 정의한다.) 여기서 자유는 “네가지의 자유, 곧 경제적 자유, 양심적 자유, 정치적 자유, 불안과 威嚇에서의 자유”¹⁷⁾이다. 이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자유, 즉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재정의이다. 백낙준에 따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제도, 특히 “제국주의의 착취와 압박은 우리로 하여금 날 때부터 가진 빼앗을 수 없고, 없이하여 버릴 수도 없는, 이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 권리”를 찾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는 남의 소유권을 침범함이 없는 동시에 남의 소유권을 착취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적 자유 안에서는 사람마다 자기의 능력대로 생산하고 수요에 의하여 이용하며, 개인의 생활은 향상되고 국가 사회의 경제적 제도가 원활하게 되며 각자가 직업을 얻고, 각자가 자기 능력을 원만히 발휘하고 개인의 생활이 보장되며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¹⁸⁾

여기서 식민 통치에 의한 주권의 박탈과 주권의 회복은 소유권의 정당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하여 “살 권리”(주권)는 소유권이 되고, 살 권리를 가능케 하는 자유는 경제적 자유가 된다. 다시 이 살 권리(자유와 주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폭력의 정당화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네 번째 자유, 즉 “불안과 威嚇에서의 자유”이다. 이는 UN으로 대표되는 “집단안전보장”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며 백낙준에 따르면 “불안과 威嚇에서의 자유를 얻는 방식”은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들을 제거하는 데서

16) 위의 글, 118쪽.

17) 위의 글, 121쪽.

18) 위의 글, 118~119쪽.

비롯된다. 따라서 자유에는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자유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¹⁹⁾ 백낙준의 글은 냉전 서사에서 1919·3·1이 주권의 박탈과 회복이라는 역사적 계기들을 도입하면서, 자유와 자유가 아닌 것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또 자유에 대한 정의는 “살 권리”에 대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의미에서 “자유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1919·3·1은 냉전의 서사에서 주권, 살 권리, 자유 등의 개념을 정의하는 상징적 기호가 된다. 이 서사는 역사적 시간성을 다시 조직하는 통시적인 구조와, 자유, 민주주의, 살 권리 등의 개념을 다시 쓰는 공시적인 구조를 동시에 내포한다. 이 통시적 구조와 공시적 구조가 교차하는 지점이 퇴폐의 시간(역사성으로서 식민 통치)과 당대적인 퇴폐의 계기들(내적 질서의 문란)이다. 1919·3·1에 대한 냉전 서사에서 이러한 교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최근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3. 탐구활동

다음은 1948년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이다. 밑줄 그은 부분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밝힌 까닭을 말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체도를 수립하여…….

<학습정리>

1. 내용의 요지

가. 3·1 운동

- 고종 황제 서거와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 위의 글, 121쪽.

-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밝힌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었다.
-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 3·1 운동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민족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²⁰⁾

이 교과서에 제시된 1919·3·1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냉전 서사에서 전형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다. 이제는 거의 식상한 관용어가 되어버린 위의 진술은 실상 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래 정교화(revision)된 1919·3·1과 국체(national body)의 관계에 대한 서사 기법의 소산이다.²¹⁾ 문제에서 친절하게 중요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이 서사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19·3·1이 대한민국의 건립 정신(정통성의 근간)이라는 점이다. 이때 1919·3·1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국체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재건”, “정의 인도와 동포애”, “민족의 단결”, “사회적 폐습의 타파”, “민주주의 제도” 등의 핵심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1919·3·1은 통시적으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근간이자, “민족의 단결”과 결부된다. 또 공시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 “정의 인도와 동포애”, “사회적 폐습의 타파” 등과 결부된다. 실상 공시적인 층위에 놓인 내용들은 그 기원을 1919·3·1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성과 통시성은 상호 분리불가능하게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1919·3·1에 그 기원을 둔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건”이 필요한데, 이 “재건”은 “사회적 폐습의 타파”로부터 출발한다. “사회적 폐습의 타파”란 통시적인 준거와 공시적인 준거를 모두 포함하는데 그 준거

20)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 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발행, 2002년, 272쪽.

21) 분단 체제하 남북한 역사 기술에서 3·1에 대한 기술 방식 및 그 차이에 대해서는 염주희, 『3·1 운동에 대한 남북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 참조.

가 바로 “퇴폐”이다. 즉 퇴폐란 1919·3·1을 현재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특정한 역사적 서사를 통해서 역사적이면서도 현재적인 의미로 다시 규정된다. 이러한 서사는 1919·3·1을 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정점이자, 퇴폐의 시작점으로 서술하는 일련의 경향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여기서 1919·3·1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의 ‘찬란한 순간’들을 현재의 국체의 시원으로 재구성하면서, 동시에 1919·3·1 이후를 오욕과 치욕의 ‘병든 신체’의 상태로 표상한다. 이러한 서사의 변주들은 다양한데 그 특징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직후 1919·3·1의 위치는 어떻게 기술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이른바 해방 직후부터 1919·3·1을 “유구한 역사”와 국체의 연결 고리로 구성하는 서사는 시작되었다. 즉 이러한 서사에서 1919·3·1은 민족 신체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결절점이자, 텅 빈 “현대” 속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지점으로 기술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냉전 체제하에서 교과서의 형태이든 역사 기술의 형태이든 현대사는 항상 간략한 형태로 언급되었다. 이는 단지 가까운 현재에 대한 역사 기술의 난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문학사 기술의 경우에도 현대는 역사 기술이 “아닌” 기술 형식을 취하곤 하였다.

‘해방’ 직후 교과서로 편찬된 『國史教本』²²⁾은 1919·3·1에 대한 냉전 체제하의 서사 방식의 원형을 보여준다. 『國史教本』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편의 제 1장이 1919·3·1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에 대한 기술이고, 마지막 장은 해방에 관한 장이다. 이 책의 구성은 제 1편 <上古의 前期>, <上古의 後期>, 제 2편 <中古의 前期>, <中古의 後期>, 제 3편 <近世의 前期>, <近世의 中期>, <近世의 後期>, 제 4편 <最近> 식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제 4편은 <最近>으로 되어 있고 제

22) 震檀學會 編, 『國史教本』, 京城: 朝鮮教學圖書, 1946.

1장 <民族의 受難과 反抗>, 제 2장 <民族의 解放>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의 내용은 <海外亡命>, <亡命志士活動>, <國權回復運動>, <三一運動>, <假政府樹立>, <爆彈事件>, <光州學生事件>, <新幹會運動> 제 2장 <民族의 解放>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냉전 체제하의 역사 기술에서 현대가 간략하게 삭제되는 대신, 현대는 거의 항상 <民族의 受難과 反抗>이라는 범주 하에 포괄된다는 점이다.²³⁾ 1919·3·1은 이러한 수난의 현대사 속에서 유일한 ‘반항’의 지점이자, 모든 반항의 원점에 놓인다.

日本은 군대로써 이를 누르려 할새 여러곳에서 民衆과 衝突하여 多數의 死傷者를 내였거니와 더욱이 水原郡 鄉南面에서는 日兵의 放火와 發砲로 殘忍을 極한 虐殺이 있었다. 이것을 三一運動 또는 己未萬歲事件이라 하며 이 소동의 餘波는 여러해를 두고 움직이게 되었고 많은 志士가 獄中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 (중략)

이 己未運動은 비록 列國에 호소하여 獨立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民族覺醒에 큰 힘을 주었으니 言論 宗教界 등 모든 知識人은 民

23) 이러한 범주화는 가장 최근에 간행된 금성판 역사 교과서에서도 유지된다. 금성판 역사 교과서는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현대를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이라는 범주하에 역시 포괄하고 있다. 물론 금성판 역사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들과 달리 현대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변별적이다. 그러나 1919·3·1의 배치나 근대사에 대한 범주화에서는 이전의 서사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도 하다. 즉 금성판 교과서에서도 1919·3·1은 3절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하에 포괄되어 있다.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는 1장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 2장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장 <무장 독립 운동의 전개>, 4장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 5장 <민족 문화 수호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과 절이 세분화되고 기술 내용이 좌우 형평성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금성판 역사 교과서는 이전의 역사 기술과 구별되지만, 현대사를 배치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에서는 이전의 역사 기술과 ‘질적으로’ 구별되는 서사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김한중, 홍순권, 김태웅, 이인석, 남궁원, 남정란 지음,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출판사, 2002년 참조.

族自立的 基礎는 民族文化의 향상에 있음을 깨닫고 教育振興 物産獎勵 등의 運動에 힘을 기울리게 되었다. (중략)

그동안 社會主義의 地下活動도 눈부시게 全開되어 部分的인 經濟的 鬭爭에서 政治運動으로 옮기고 民族主義와 社會主義는 合同하여 民族單 一戰線으로서 新幹會의 創立을 보게 되어 三萬餘의 會員을 가지게 되었다.²⁴⁾

이러한 기술은 1919·3·1을 민족 수난과 반항의 구도 하에서 기술하는 전형적 방식이다. 또 다음과 같은 현대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기술 방식에 동반되는 전형적인 것이기도 하다.

解放前 三十五年이란 歲月은 우리의 過去 혹은 數千年 歷史의 긴 歲月에 比하면 한 瞬間 한 刹那에 지나지 못하나 우리의 光輝있는 民族史上에 印 찍힌 恥辱의 汚點은 이를 씻으려 하여도 씻을 수 없고 또 그 동안 받은 壓迫의 苦痛은 잊으려하여도 잊을 수 없다.²⁵⁾

위의 서사에서 식민지 시기 전체는 “수천년 역사의 긴 세월에 비하면 한 순간 한 찰나”라는 식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1919·3·1은 유일하게 빛나는 지점, 즉 마지막 역사적 시점으로 기술된다. 또 현대사는 36년의 길지만, 민족사의 유구한 세월에 비하면 한 순간일 뿐인 그러한 “찰나”로 기술되면서 동시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의 오점이라고 서술된다. 이러한 서사에서 1919·3·1 이후의 모든 시간들은 “순간”, “찰나” 혹은 공백으로 지워진다. 이처럼 1919·3·1은 ‘현대’ 이전의 민족사와 유일하게 연속성을 지니는 역사적 지점이 되고 동시에

24) 震檀學會 編, 앞의 책, 172-174쪽. 물론 『國史敎本』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 간략하나 그 의미를 평가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25) 위의 책, 176쪽.

1919·3·1 이후는 그 내용이 지워지며 대신 공백의 서사로 대체된다. 또 이렇게 역사가 사라지는 지점에서 1919·3·1 이후에는 비워진 역사의 자리에 “치욕, 오점, 고통”과 같은 심성구조가 대신 자리 잡는다. 그런 점에서 1919·3·1이란 ‘현대’ 이전의 역사와 연속성을 지니는 마지막 지점이자 치욕과 오점과 고통의 심성구조를 무의식 저편에 묻어두고, “해방”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다. 1919·3·1 이후에 대해 “치욕, 오점, 고통”으로 표상하는 방식은 이 지점을 주권성의 퇴폐와 몰락으로 간주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1919·3·1이 망국의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정점의 순간이 되면서, 동시에 다른 시간은 망국적인, 퇴폐와 몰락, 치욕과 오점, 고통의 순간들이 된다. 역사 기술에서 이러한 방식은 현대사를 ‘민족의 수난과 반항’이라는 범주 하에 기술하는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퇴폐에 대한 표상이 ‘병든 신체’라는 수사를 동반하는 경우는 빈번한데, 현대사를 퇴폐로 기술하는 서사에서 이는 친일 협력을 ‘병치레’로 유비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⁶⁾

이러한 식의 조립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최남선의 역사 기술에서도 반복된다. 최남선의 『國民朝鮮歷史』는 총 2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에 대한 기술은 제 216장 <독립의 싸움> 한 장만에만 할애되어 있다. 여기서 1919·3·1의 상징적 의미는 앞서 살펴본 진단학회 편 의 『國史敎本』 기술과 유사하다. 『國民朝鮮歷史』의 제 216장 <독립의 싸움>

26) 이에 대해서는 권명아, 「환멸과 생존: 협력 담론의 역사」,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역학』, 책세상, 2009 참조. 1919·3·1과 병든 신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밝혀둘 것은 이러한 논의는 필자가 친일 협력을 포함한 현대사를 질병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를 질병으로 유비하는 것은 냉전 서사의 전형적 패턴이다. 그런 점에서 냉전의 신체 속에서 친일 협력을 포함한 ‘현대’는 항상 질병의 형식, 혹은 억압된 것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역의 방식, 즉 ‘현대’가 억압된 것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냉전의 몸속에 있기 때문이다.

의 마지막 구절에서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러케하여 日本은 暴慢詐僞의 뜻해 저의 나라를 亡하고 朝鮮人은 內外一致 不撓不屈하는 協同力으로써 民族復興의 曙光을 必지하얏다. 그리고 朝鮮歷史의 連線性은 暫時의 紆曲을 지내고 다시 自如한 본태로 도라왔다.”²⁷⁾ 즉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은 조선 역사의 “연선성(連線性)”에서 잠시의 이탈이었을 뿐이고 역시 1919·3·1은 이러한 이탈의 와중에서 이 “연선성”과 접속된 유일한 지점이다.

진단학회 편 의 『國史敎本』이나 최남선의 1947년 판본 『國民朝鮮歷史』에서는 외세에 의해 지배당한 “치욕, 오점, 고통”이 ‘현대’에 국한되어 있고, 이는 유구한 민족사에 비추어 “순간”이거나 “찰나”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1950년대에 출간된 역사서에서는 ‘현대’라는 순간에 해당한 외세에 의해 침탈된 역사라는 기술 방식이 상고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으로 전화된다. 이는 “치욕, 오점, 고통”으로 억압되고 대체된 ‘현대’에 대한 인식이 상고사까지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1950년대에는 “국난사”라는 형식으로, 즉 국사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다가, 1960년대 말에는 교과서적 역사 기술의 자리를 점하게 된다.

현대를 ‘역사’로 기술할 수 없는 딜레마는 역사를 수난의 민족사라는 형태로 전도시켰고, 이러한 수난사적 역사 기술은 “국적 있는 역사 교육”의 기치 하에 교과서의 자리를 점하게 된다. 『國難史概觀』(1956)²⁸⁾이나 『國難克服의 歷史』²⁹⁾나 『韓民族의 國難克服史』³⁰⁾ 등이 대표적이고 『시

27) 최남선, 『國民朝鮮歷史』, 東明社, 1947, 230쪽.

28) 金鍾權 저, 『國難史概觀』, 최남선 서, 凡潮社, 1956. (책 표지에 최남선이 서문을 썼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29) 申範植, 『國難克服의 歷史』, 大成文化叢書, 1963.

30) 李瑄根, 『韓民族의 國難克服史』, 崇文出版社, 1978.

련과 극복』³¹⁾은 이러한 수난사적 역사 기술을 토대로 한 교과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난사적 역사 기술은 1919·3·1 이후의 시간을 망국적인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현대사를 ‘병든 신체’의 비유로 그려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퇴폐는 병든 신체라는 비유와 결부되고 퇴폐는 미학적, 병리적, 역사 철학적 규정뿐 아니라 망국적인 것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그 의미 규정의 한 요소로 갖게 된다.

4. 망국적인 것, 퇴폐, 그리고 현대문학사

냉전 체제하에서 퇴폐리는 범주가 망국적인 것과 결부되는 양상은 다양한 지점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다. 지금까지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이 망국적인 것과 결부되고, 망국적인 것이 역사적 준거를 통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문학사에서 퇴폐 범주란 어떨까? 문학사에 있어서 퇴폐 범주 역시 이와 같은 냉전 서사와 무관한 미학적, 역사철학적 의미의 내적 작용에 의해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냉전 서사 하에 구성되는 문학사에서 퇴폐 범주의 의미 작용을 백철의 문학사와 그 다양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백철의 문학사 기술의 여러 판본들에 대해 이 글에서 중점을 두고 고찰하려는 지점은 “현대”에 대한 기술과 1919·3·1에 대한 기술에 드러나는 분열이다. 백철의 문학사 기술에서 드러나는 분열은 망국적인 것이라는 범주가 당대에 대한 기술과 역사에 대한 기술 사이를 오가며 작용하는 풍기문란 담론의 냉전적 변형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 현대사(문학사)의 기술에서 망국적인 것과 퇴폐의 요인이 주권성의 내부와

31) 문교부, 『시련과 극복』, 동아서적주식회사, 1972.

외부를 오가며 전도되는 과정은 명확한 냉전 서사의 영향이라는 점을 백철의 문학사는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즉 초기 문학사 기술에서 1919·3·1의 실패 원인을 민족 내적 요인(특히 계급 문제의 차원)으로 규명하던 방식이 이후의 문학사 기술에서 외적 요인(외세에 의한 수난의 강조와 계급 요인의 삭제)으로 대체되는 것은 냉전 서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것이다. 또 퇴폐의 원인을 외부화하면서 계급적 차이는 문학의 ‘주권성’을 위협하는 내적 위험 요인(계급 문학을 문학적인 것의 후퇴로 재규정하는 방식)으로 전도된다. 그런 점에서 백철의 문학사 기술은 냉전 서사에서 망국적인 것과 퇴폐, 주권성의 규정이 상호 연동되는 전형적인 방식을 ‘문학적’으로 보여준다.

해방 이후 처음 집필된 백철의 신문학사는 『朝鮮新文學思潮史』³²⁾이다. 이후 백철은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내면서 원본의 내용을 삭제, 수정, 재 첨가, 재수정 하였다. 이 과정은 문학사 기술의 방법론적 변화와도 다소간 관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냉전 체제하의 이데올로기적 금기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개작 과정의 가장 큰 특질은 “프로 문학 계열에 대한 축소와 비판, 민족주의 계열과 순수문학에 대한 확대서술”³³⁾이다.

1948년과 1949년에 출간된 원본 『朝鮮新文學思潮史』는 근대와 현대편으로 구별되어 있다. 근대편은 개화기에서 1919·3·1을 거쳐 1919·3·1이후의 퇴폐와 낭만주의, 자연주의의 시대를 기술하고 있고, 현대편은 신경향파의 대두에서 해방 직후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근대와

32) 백철, 『朝鮮新文學思潮史』 근대편, 수선사, 1948; 현대편, 백양당, 1949.

33) 전용호,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개작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2005, 291쪽.

백철의 해방 이후 문학사 기술에 대해서는 김윤식, 『백철 연구』, 소명출판사, 2008 참조. 백철 문학사의 판본 변화와 개작 양상에 대해서는 전용호, 「백철 문학사의 판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회, 2004 참조.

현대의 구별은 신경향과의 대두를 ‘현대’의 출발로 상정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민족주의가 백철에게 근대의 이념이라면, 사회주의는 현대의 이념으로 인식된 것이다.”³⁴⁾

근대와 현대의 구별이 판본마다 변하는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3년/1955년 민중서관 판본에서는 근대와 현대로 나누어 출간했던 것을 한권의 문학사로 구성했고 이에 따라 근대와 현대의 시대 구분이 사라졌다. 또 현대에 대한 기술은 대폭 축소되었다. 1956년 이병기와 공저한 『표준국문학사』에서는 현대가 사라졌고, 1957년의 개정된 『표준국문학사』에서는 다시 근대와 현대로 나누었다. 1968년도 전집본에서는 근대와 현대의 구별이 드러나지 않고 현대 편으로 기술되었던 신경향과 문학은 “신문학의 갈림길”이라는 항목으로 기술된다. 이 개작과 수정 과정은 세부적인 기술 방식, 작품에 대한 평가 등 문학사 전체에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개작과 수정은 ‘현대’, 즉 사회주의와 일제 말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강박증과 관련되고 개작과 수정은 한국 전쟁, 박정희 체제 등 외적 상황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백철의 문학사 기술에서 사회주의와 일제 말기에 대해 삭제, 보충, 재기술 등으로 점철된 강박적인 교정 작업은 단지 사회주의와 일제 말기라는 대상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여기서 사회주의와 일제 말기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는 1919·3·1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연동되는 데, 백철의 문학사 기술에서 이는 일종의 ‘난국’처럼 보인다. 1919·3·1에 대한 기술 방식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뚜렷한 변화의 방향과 목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혼란은 1968년의 전집본에 이르면 1919·3·1을 ‘국체’의 이념에 따라 ‘정석적’으로 기술하면서 안정되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정착된다.

34) 전용호, 『백철 문학사의 판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회, 2004, 294쪽.

김윤식도 지적하고 있듯이 백철의 문학사 기술 과정은 현대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제도적 정착 과정에 다름 아니다. 백철의 문학사 기술의 ‘완성’은 1919·3·1을 ‘국체’의 이념에 따라 ‘정석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통해 퇴폐를 국가 주권성의 이념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현대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제도적 정착은 국가 주권성의 이념에 따라 퇴폐와 현대의 상호관계를 재규정하고 이를 통해 현대라는 시간과 문학이라는 신체를 재구성한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재구성의 방향과 목적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원본 문학사에서 1919·3·1은 부르주아의 전개와 그 역사적 지위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결절점이다. 1919·3·1의 의미는 부르주아 운동의 역사적 전개의 궁극이기 때문이며, 한계는 바로 부르주아 계급의 역사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1919·3·1은 그 안에 이러한 한계를 시정할 내적 요인 또한 담고 있고, 그것이 부르주아를 대체할 “새로운 계급”의 출현이며, 이것이 신경향파라는 ‘사조’의 대두와 관련된다. 따라서 1919·3·1 이후 “병든” 문학, “퇴폐”는 부르주아의 역사적 한계와 관련된다. 또 퇴폐는 1919·3·1의 실패에 따른 환멸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퇴폐는 신경향파의 새로운 이상주의에서는 경향적으로 극복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문학사 기술에서 ‘현대’가 더 이상 원본 문학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기술되지 않으면서, 1919·3·1에 대한 기술은 분열된다.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전과 달리 1919·3·1의 성과를 더욱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퇴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원본 문학사의 관점에 따르면 1919·3·1의 성과를 강조한다면 1919·3·1 이후의 퇴폐의 대두에 대한 설명은 내적인 설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19·3·1의 ‘실패’가 부르주아의 내적 한계가 아닌, 일본의 “야만적인 폭압”으로 인한 것이라는 식으로 기술이 달

라진다는 점이다. 퇴폐는 따라서 부르주아의 역사적 한계의 발현이 아니라, 1919·3·1의 실패에 따른 환멸의 소산인데, 이는 내적인 요인(부르주아의 한계라는)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야만적인 폭압이라는 외적 요인에서 전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퇴폐는 이제, 이를 극복하는 내적인 경향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야만적인 폭압에 따른 내적인 수난의 결과로 전도된다. 따라서 퇴폐는 1919·3·1의 실패와 그 이후의 민족의 수난과 등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수난과 퇴폐가 민족의 외부와 내부라는 식의 서사로 전도되면서 역으로 1919·3·1의 역사적 의미는 “기념탑”으로 세워진다.

초판과 1953년 민중서관 본 개정판에서는 1919·3·1은 제 4장 <頹廢的으로 文學이 病든 時代>의 제 1절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1968년 전집본에서는 제 2편, <초기의 신문학> 제 2장 <근대 문예사조의 등장>에 기술된다. 판본간의 차이에서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해둘 것은 1949년의 『朝鮮新文學思潮史』의 현대 편에서는 일제 말기를 암흑기로 기술하면서 이 시기를 ‘민족의 수난’이라는 범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1968년 개정판에서는 암흑기에 대한 기술에 “민족 수난과 어문학”이라는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역사 기술 방식의 변화 등이 문학사 기술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³⁵⁾

35) 백철 자신도 이러한 반영 과정에 대해서 명료하게 기술한 바 있다. 『國文學史 研究와 現代 意識』(고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월례 발표회, 1976년 11월 13일)이라는 글에서 백철은 “현대문학운동”은 일제 36년을 청산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논하며 논의를 시작한다. 즉 백철은 해방 후 “현대문학 운동”은 “특히 지난 36년간의 한국 신문학운동은 민족문학다운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민족문학을 운동으로 해가야겠다는 것이 해방을 맞이한 문단인 전체의 의사표시로 된 사실이다.”라고 논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문학 운동은 1960년대로 와서야 본격화되었다고 백철은 논하는데 이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1960년대의 전통론이다. 이에 대해 백철은 “이 전통론은 현실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세운 主體性的의 문제와 상응한 문단의 과제였다고

이러한 조립과 분해, 재조립의 과정은 다양하게 진행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상징적인 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19·3·1을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적 임무가 다한 시점으로 보는 방식은 원본 『朝鮮新文學思潮史』에서 근대와 현대를 구별하는 주요한 기준이었다. 즉 1919·3·1을 민족주의 운동으로 본다는 것은 그 실패 역시 민족주의 운동의 한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反帝鬪爭이란 純粹하게 民族主義의 反抗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根本的인 解決을 볼수없다는 것과 또 三一運動時期에 있어서 世界的으론 勿論 市民과 對立하는 階級이 生成된 시기요 國內에 있어서도 비록 미미하나마 새로운 要素가 發芽되고 있던 事實을 無視할수 없기 때문이다.”³⁶⁾라는 식의 진술에서 백철의 1948년 시점의 기술 방식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여기서 1919·3·1은 민족주의 운동의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그러나 三一運動의 主演이 民族主義였다는 것은 누구나 否定하지 못할 事實이다. 基本的인 意味에 있어서 朝鮮의 民族主義가 大結論을 지은 것도 이 階段이다.”³⁷⁾ 따라서 삼일운동의 실패와 그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삼일운동의 담당층의 역량의 문제, 즉 민족주의 운동의 한계라는 점에서 기술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三一獨立運動과 그 文化的 影響>이라는 절에서 백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內外의 情勢下에 이러한 三一運動이 結果로선 너무 無常한 失敗로 돌아간것은 우리가 周知하는 事實이다. 예나 지금이나 民族自決이니 自主

할 수밖에 없다. 주체성을 세우는 것, 국적이 있는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고 문화제를 발굴해서 소중히 관리하는 일 등이 모두 자기 것을 소중히 하는 傳統意識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글, 271쪽 참조.

36) 『朝鮮新文學思潮史』, 근대편, 1948, 수선사, 78쪽.

37) 앞 책, 178쪽. 이 부분은 전집본에서 삭제되었다. 전용호의 논문은 三一運動과 관련 하여 삭제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전용호, 앞 글, 참조.

獨立…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國際的 虛宣傳에 불과한 것이요 國內的으로 十年간의 啓蒙教育의 民族實力養成이 日本 帝國主義 앞에 實로 微力했다는 事實, 따라서 그 近代革命을 敢行하는 主體的 實力도 너무 微力이었다는 것을 證明해준 것이다.³⁸⁾

백철의 문학사 기술에서 현대에 대한 기술의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판본은 1956년의 『표준 국문학사』이다. 이병기와 백철이 집필한 문학 교과서인 『표준 국문학사』(1956)³⁹⁾는 국문학사의 개념, 시대구분, 특수성 등에 대해 논의한 서론에 이어서, 제 1편, <麗朝以前>, 제 2편, <近朝>, 제 3편 <현대>의 순서로 전개된다. 그러나 현대에 대한 개념 규정은 1948년과 1949년의 『朝鮮新文學思潮史』와 완전히 다르다.

당시 신문학이 지닌 바 현대적 이데아는 곧 민족 정신이었다.⁴⁰⁾

『표준 국문학사』(1956)에서는 “자연주의 이후 10년간의 문학”에서 낭만주의와 자연주의 문학 이후 신경향파와 그밖의 정치 문학이 성행하였다고 간략히 언급한 후 “그 뒤 약 10년간은 그 정치 문학이 문단을 지배하다시피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 정치 문학이라는 것이 너무 그 파의 정치주의에 치우쳤고 실지로 문학사적 의의에선 반드시 기록 서술해야 할 가치가 희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잡한 것을 피하여 그 과정만은 전부 생략하고, 다만 그 때 민족적인 문학 또는 순문학적인 동태 등에만 한해서 그 사실을 약술하기로 한다.⁴¹⁾고 기술하면서 현대에 대한 기

38) 『朝鮮新文學思潮史』 근대편, 수선사, 1948, 149쪽.

39) 이병기, 백철, 『표준 국문학사』(남녀 고등 사범, 실업 고등 국어과 1,2,3용), 신구문회사, 1956년.

40) 위의 책, 131쪽.

41) 위의 책, 173쪽.

술을 생략한다. 신경향파에 대한 언급이 대폭 생략된 것과 대조적으로 1919·3·1은 현대를 기술하는 극적인 분기점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대적으로 보아서 저물어 가는 시절, 눈앞에 아무 희망과 이상을 가질 수 없는, 어두운 현실을 배경함으로써 하나의 색다른 낭만주의를 낳아 놓게 되는 것, 곧 이것을 우리는 **병든 낭만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병든 낭만주의는 대지 위에 발을 디디고 나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인 현실을 떠나서, 하염없는 꿈을 그리는 염세적(厭世的)인, 또는 현실 도피적(逃避的)인 기분의 문학이다. 말하자면 1922년 『백조파』의 낭만주의는 둘째번의 병든 낭만주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는 4252<1919>년 3·1 운동이 실패된 뒤에 생겨진 비판적인, 또는 절망적인 사회 현상, 거기서 드디어 퇴폐주의적인 문학이 발생한 것과 같은 토대 위에 이 낭만주의가 자라나게 된 것이다.⁴²⁾

즉 1919·3·1이 민족사의 “기념탑”과 같은 시점이라면 1919·3·1 이후는 완전한 몰락, 어둠, 퇴폐의 시기이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1919·3·1이후를 퇴폐의 시기로 기술하면서, 일제 말기를 암흑기로 자연스럽게 기술하는 내적 요인이 된다.

1968년의 『신문학사조사』에서는 앞서 인용했던 바 1948년 판본에 기술되었던 부분 중 삼일운동의 실패가 “主體的 實力도 너무 微力이었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구절이 그대로 기술된다. 그러나 그 의미 내용은 원본과 같을 수가 없다. 현대의 의미, 즉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1923년 이래 10년간 “장기간의 문단 집권”을 했지만, 그 “남긴 공로”는 “의외로 공허했던 것”이라는 비판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1949년의 현대에 대한 기술에는 없던 “프롤레타리아 문학 비판”이라는 절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단지 형식적인 추가나 프롤레타

42) 위의 책, 160쪽.

리아 문학에 대한 비판적 기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48년과 1949년 판본에서는 1919·3·1과 그 이후로서 “퇴폐”의 시대는 신경향파적 이상주의를 통해 경향적으로 극복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신경향파의 이상주의가 통째로 부정될 때 1919·3·1 이후는 어떻게 될까? 그 연속성(유기적 신체)은 어떻게 다시 조립되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전통이다. 이는 신경향파적 이상주의의 대표 작품인 조명희의 『낙동강』⁴³⁾이 배치되는 방식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1948년 판본에서 조명희의 『낙동강』은 신경향파의 새로운 이상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으로 기술된다. 1948년 판본에서는 조명희의 『낙동강』에 대한 기술은 『낙동강』에 나오는 노래 구절을 소개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그 대미를 장식한다.

「봄마다 봄마다
불어내리는 낙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 넘쳐 흐르네 —
흐르네 —에—헤—야」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낙동강...낙동강...
하늘가에 가 — 나 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 —아—하—야」

이것은 『洛東江』에 나오는 노래의 구절이다.

43) 전용호는 여러 판본에서 『낙동강』에 대한 평가가 원본과 달리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로 축소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鄉愁의인 것과 地方的인 것은 거기에 맞어진것이 아니고 그것을 通하여, 未來로 向한 情熱이요 階級과 通한 理想이었다. 그 契機는 亦是 男女主人公들의 反逆的인 情熱위에 나타나있다.⁴⁴⁾

1968년의 『新文學思潮史』에서도 『낙동강』의 노래를 인용하며 조명희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다. 같은 노래를 인용한 후 이에 대한 평가와 기술은 다음과 같이 교정된다.

이것은 『洛東江』에 나오는 노래의 구절이다.
그 鄉愁性, 그 永嘆性은 어딘지 浪漫性과 통하고 있다.⁴⁵⁾

1948년 판본에서는 “조선 낭만주의의 규정”이라는 절이 마무리 되고, 다음 절 “백조파와 병적 낭만정신”에 대한 절이 시작된다. 1968년의 『新文學思潮史』에서는 이 절들이 “한국 낭만주의의 특질”과 “『백조』와 낭만정신”으로 절 제목이 바뀌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절 사이에 이전에는 없던 부분을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구절에 이어 다음과 같은 진술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 계보의 浪漫主義를 살피는 데 있어서 더 근대 浪漫文學 本有的 한 작품성에 유의하고 우리 二〇년대의 詩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방면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二〇년대의 민요풍의 서정시의 계열에 대한 이야기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그 근대적인 新詩運動이 처음에는 서구의 詩風, 특히 象徴派의 사조나 언어법을 소개하고 배워서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어서 온 그 뒤의 경로를 더듬어가면 처음엔 서구적인 것에 의존했던 詩人들 중에 그 서구풍을 버리고 우리나라 傳來의 민요풍의 서정시로 전환한

44) 『朝鮮新文學思潮史』 근대편, 수선사, 1948, 274~275쪽.

45) 백철, 『新文學思潮史』, 신구문화사, 1968, 195쪽.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시인들이 朱耀翰이요, 金億이요, 그 뒤를 이어서 그 詩風을 겸용하여 二〇년대의 대표적 서정시인이 된 사람이 金素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요풍으로 온 것이 실은 근대 浪漫詩의 本境地를 개척한 것이 된다.⁴⁶⁾

이러한 진술 하에 민요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는 1919·3·1과 그 이후의 “퇴폐”, 그리고 그 “퇴폐”가 극복될 이상적 경향성으로서 신경향파라는 1948년 판본의 해석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1919·3·1 이후의 퇴폐는 신경향파가 아닌, “민요시”, 즉 전통에 의해 극복되는 것이고, 이 전통이야말로 낭만주의의 “本境地”가 된다. 또 이러한 전통의 호출이란 백철 자신이 말한 바 냉전의 신체 조형술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이 전통론은 현실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내세운 主體性的의 문제와 상응한 문단의 과제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주체성을 세우는 것, 국적이 있는 교육과 문화를 장려하고 문화재를 발굴해서 소중히 관리하는 일 등이 모두 자기 것을 소중히 하는 傳統意識의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없다.”⁴⁷⁾)

5. 안녕, 문란

냉전 체제하에서 민족사의 기술, 혹은 역사에 대한 민족사적 기술에 대해서는 주로 민족이나, 국가, 혹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는 차원에서 고찰되었다. 또 풍기문란은 당대의 시정 세태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입과 문화생산물에 대한 검열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진다. 그러나 냉전 서사에

46) 위의 책, 195~196쪽.

47) 백철, 『國文學史 研究와 現代 意識』, 고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월례 발표회, 1976년 11월 13일, 271쪽 참조.

의해 재구성된 풍기문란이라는 규정은 당대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을 특수한 방식으로 결부시킨다. 따라서 냉전 서사에서 역사 기술과 여성의 정조 문제, 문학사와 장발 단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이 연루는 풍기문란이라는 것이 인간, 사회, 자유, 살 권리(인권), 주권을 상상하는 구조나 서사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냉전 서사에서 퇴폐의 규정에는 인간과 사회, 살 권리와 그 박탈에 대한 인식의 틀이 망국적이라는 역사에 대한 서사와 긴밀하게 연동하면서 내장되어 있다. 또 퇴폐라는 규정은 문란(음란함의 의미로서의 문란에서 치안 질서 문란, 헌정 질서 문란 등의 함의로 이어지는)과 안녕(안녕 질서 문란, 시민 사회의 안녕 등의 범주)이라는 규정과도 긴밀한 연동을 이룬다. 최근의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듯이 안녕이나 문란이라는 규정이 사회(/폭동), 인간(/폭도), 삶과 죽음, 교통질서와 엄마 자격, 좇볼과 유모차에 이르는 매우 이질적인 대상을 넘나들며 작동하는 것은 퇴폐, 안녕, 문란이라는 규정의 이러한 작동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풍기문란에 대한 연구는 단지 특정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연구나, 문학사 연구, 검열 연구와 같은 특정 분과학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냉전 체제하에서 풍기문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특정한 분과학문의 욕망(문학, 현대문학, 역사학 등)이 죽음의 정치를 교양, 학문,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시켜 내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본고에서 풍기문란이 냉전 프레임을 통해 변용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역사학이나 문학(현대문학)이라는 분과학문의 제도적 정착화 과정에 다소 무리하게 집중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풍기문란과 관련된 더 많은 문제들을 충분히 다 포괄해서 다루지는 못하였다. 미진한 점들은 이후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 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발행, 2002년, 272쪽.
- 金斗鎔, 「조선인과 천황제 타도 문제」, 『신천지』 제1권9호, 1946년 10월호.
- 金志三, 「인도네시아의 민족 운동」, 『신천지』 제2권7호, 1947년 8월호.
- 기사, 「“못된 유행”-20年代 퇴폐풍조」, 『조선일보』, 1973년 4월 24일.
- 기사, 「광복 30년-풍속 사범, “貞操 38線서 演藝 스캔들까지”」, 『朝鮮日報』, 1975년 6월 14일.
- 기사, 「虛榮女에 경고」, 『朝鮮日報』 1947년 1월 21일.
- 김한중, 홍순권, 김태웅, 이인석, 남궁원, 남정란 지음,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 출판사, 2002년.
- 馬鳴, 「정치과업과 정신과업-재건정신의 수립을 논함」, 『신천지』 제2권 5호, 47년 6월호.
- 문교부, 『시련과 극복』, 동아서적주식회사, 1972.
- 문예영화, <류관순>, 박화성 원작, 金基惠 감독, 심의대본, 1970.
- 백낙준, 「三一精神論 - 우리 獨立宣言書의 4大基本自由에 對하여」, 『思想界』, 창간호, 1953년 4월호.
- 백철, 「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회 특강-젊은 세대의 반항 심리」, 『生活指導全書』, 韓國學徒敎導研究會, 1959년, 교도신문사.
- 백철, 「國文學史 研究와 現代 意識」, 고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월례 발표회, 1976년 11월 13일.
- 백철, 『新文學思潮史』, 신구문화사, 1968.
- 백철, 『新文學思潮史』, 민중서관, 1953년.
- 백철, 『朝鮮新文學思潮史』 근대편, 수선사, 1948; 현대편, 백양당, 1949.
- 백철, 이병기, 『표준 국문학사』(남녀 고등 사범, 실업 고등 국어과 1,2,3용), 신구문화사, 1956년.
- 申範植, 『國難克服의 歷史』, 大成文化叢書, 1963.
- 李瑄根, 『韓民族의 國難克服史』, 崇文出版社, 1978.

- 조운제, 『韓國文學史』, 동국문화사, 1963.
震檀學會 編, 『國史教本』, 京城: 朝鮮教學圖書, 1946.
최남선 서, 金鍾權 저, 『國難史概觀』, 凡潮社, 1956.
최남선, 『國民朝鮮歷史』, 東明社, 1947.

2. 단행본

- 권명아, 『식민지 이후를 사유하다: 탈식민화와 재식민화의 역학』, 책세상, 2009.
163~223쪽.
김윤식, 『백철 연구』, 소명출판사, 2008, 499~640쪽.
김예림, 『1930년대 후반 근대 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출판, 2004, 11~223쪽.

3. 논문

- 권명아, 『풍속 통제와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학회, 33호, 2007, 4, 367~406쪽.
권명아, 『음란함과 죽음의 정치』, 『현대소설연구』 39, 현대소설학회, 2008, 12.
27~54쪽.
서중석,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 문제 많다』, 『역사비평』 56호, 역사비평사
2001년 가을호, 148~184쪽.
염주희, 『3·1 운동에 대한 남북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7.
전용호, 『백철 문학사의 판본 연구』, 『민족문화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회, 2004,
279~310쪽.
전용호,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개작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민족어문학
회, 2005, 291~320쪽
후지이 다케시, 『제1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 『역사비평』 2008년 여름호,
117~150쪽.

Abstract

The 38th parallel of chastity, decadence, and the History of literature

Kwon, Myoung-a

In colonial period, the control over the ‘customs and the manner’ began in early 20c. In 1910, the ‘customs and the manner’ controls are mainly relate with the “old fashioned life style”, for example, the ceremonies of funeral and the marriage. But in this time, the ‘customs and the manner’ controls include the administration of the sexuality of the people. In 1926, the ‘customs and the manner’ control was extended into the instance of everyday life, including the controlling over the different kinds of the entertainment and amusement trades (cafe, theater, dance hall, restaurant, and the red-right district). After the liberation, the standards of the ‘customs and the manner’ controls had transformed in diverse ways. In cold war era, the standards of the ‘customs and the manner’ controls were connected with the narrative of history, especially the narrative of “the mouvement of 3·1”. In this relation, the definition and the boundary of the standards like decadence, decay, being well, disorder were transformed into cold war narrative.

Key words : The 38th parallel of chastity, decadence, the History of literature, the ‘customs and the manner’ controls, decay, being well, disorder

- 본 논문은 10월 30일에 접수되어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